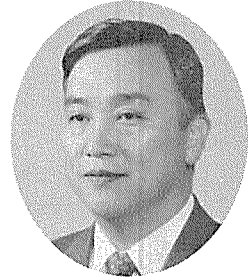


“致 辭”

종사자와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가 선행



鄭 根 謨
前 科學技術處 長官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임용규 회장님
그리고 이 Symposium에 참가하신 국내·
외 내빈여러분,

오늘 『2,000년대를 향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Symposium에서
본인이 치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
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1978년
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현재 9기의 원자
력발전소에서 발전량의 50% 이상을 생산하
므로써 원전보유 26개 국가중 10위에 이르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모범사례로 평
가받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난번 제네바에서
열린 제4차 NPT 회의의 개회식사에서
IAEA 사무총장 블릭스박사는 한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예라고 말하였습
니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있어서는 19
59년 원자력원 창설이후 원자력연구소를 중
심으로 의료, 농학 및 산업등 각분야에 걸친
기초 및 응용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
며, '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더
불어 방사성동위원소이용은 매년 15 내지 20
%의 빠른 신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이

용기관수는 690여 기관에 이르고 있는 것입
니다.

이러한 발전은 RI 이용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협회 및 그 회원기관들
의 열성적인 노력과 상호협력의 결과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에 방사성동위원소협회 임
원과 그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
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방사성동위원소는
날이 갈수록 이용분야가 다양해지고 그 이용
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선진각국에서는 현재
RI의 이용연구에 지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RI 이
용 및 연구는 아직 그 출발에 불과하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RI의 국내 자체공급은 전체 수요의
1%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
덕 원자력연구소 부지내에 건설되고 있는 다
목적연구용원자로가 '93년도에 가동되고 그
에 따라서 동위원소 대량생산의 기틀을 마련
함은 물론 RI를 이용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연구활동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
부에서는 앞으로 원자력행정에 있어서 원자
력발전에 쏟고 있는 것에 못지않게 RI 이용
촉진 및 산업육성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의 자립계획등이 포함된 『원자력 장기발전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원자력위원회에서 정부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RI의 이용에는 무엇보다도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과 마찬가지로 RI 이용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RI 이용을 위한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을 절대명제로 하는 『원자력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정부가 힘을 합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요, 또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본과 소련에서 방사성동위원소에 관해서 원자력전문가들이 참가해서 간단히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I'm extremely pleased to have participation from the Soviet Union and Japan. Last week we had the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Vienna, Austria. And I had pleasure of participating in that annual conference as the head of Korean delegation.

Before that meeting, we had the ministerial meeting in which Minister Oschima of Japan and Minister Panopalov of the Soviet Union participated.

We had very interesting discussion and I'm extremely pleased to have that kind of meeting initiated and we are going to have that kind of informal discussion every year before the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s you know, our government is extremely interested in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especially in atomic energy.

And we have been very active member of IAEA. There is successful project called RCA i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is very active member and Japan has contributed greatly, and we have been so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uclear energy, in which we wish to have participation of the Soviet Union and Japan, and other countries in this region.

As I said in the Korean congratulatory speech, I believe the nuclear energy and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RI is very important area for the decade of coming century.

And in this a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very important.

In this sense, I wish to express our heartfelt welcome to the overseas participants and I hope this symposium will be another milestone in promoting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nations in this Asia-Pacific area including Soviet Union which is again one Asia-Pacific nation.

I hope you, who came from abroad will have not only good symposium but also a pleasant stay in Seoul.

오늘의 Symposium이 성공리에 끝나고 앞으로 이러한 Symposium을 통하여 동위원소 이용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그리고 소련, 일본등과의 긴밀한 국제협력 관계가 더욱더 증진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인사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0. 9. 28